

# 아·름·다·운·항·해

한 여객선 사장이 외국인 근로자와 소년 소녀 가정들과 함께 '아름다운 배길 여행'을 다녀왔다.

화제의 주인공은 목표 '씨월드고속훼리' 이혁영(60) 사장. 고향을 떠나 산업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와 부모가 없어 남들처럼 휴가를 입두도 못 내고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 소년소녀 가정들을 데리고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갔다는 것이다. 이번 여행에는 필리핀·러시아·중국 등 외국인 근로자 138명과 서남권 소년소녀 가장 131명 등 모두 287명이 초청됐다.

이 사장은 지난 26일 이들을 뚝포~제주 간을 운항하는 1만3천t급 '뉴씨월드고속훼리'에 태워 제주도로 출발했다. 소년소녀가장 등은 1박2일 동안 천지연 폭포·여미지 식물원·서산 일출봉 등지의 관광지를 둘러보고 물고래쇼 등을 관람하며 제주도에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 사장이 이번 여행을 기획한 것은 지난해 말 외국인 근로자 320명을 초청해 가졌던 송년회 행사를 당시 "고향 같은 분위기가 나는 제주도를 한 번 가보고 싶다"는 한 필리핀 노동자의 얘기를 듣고 마련한 것이다.

이번 여행에는 광주지검 목표지정 하재옥, 김호삼 검사 등 2명이 동승해 외국인 근로자의 고충처리와 법률 상담을 해줬다.

7년 전부터 여름이 되면 소년소녀 가정들과 함께 '아름다운 배길 여행'을 해온 이 사장은 이번 여행에 필요한 경비 4천여만 원을 전액 부담했다.

## ■ 목표 '씨월드고속훼리' 이혁영 사장 외국인근로자·소년소녀가장 초청 287명과 사랑의 제주도 배길여행

소녀가장 서모(13·초등 6년)양은 "어름내내 할머니와 동생들과 함께 집에 갇혀 지내느라 너무 더웠고 힘들었다"며 "말로만 들어왔고 책에서만 보았던 제주도를 직접 가보니 너무 좋았다"고 말했다.

/목표=이상선기자 sslee@kwangju.co.kr



목표 '씨월드고속훼리' 이혁영 사장(왼쪽)이 소년소녀가장과 외국인 근로자가 제주행 배에 오르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목표=이상선기자 sslee@kwangju.co.kr

## 진도대교 일부 파손

### 바지선에 실린 해저굴착기에 들이받혀

27일 오후 1시45분께 진도군 근내면 울돌목(鳴梁海峽) 부근에서 부산선적 3천t급 바지선 'JB1호'에 실려 있던 해저굴착기(높이 36m)가 높이 30m의 '제1 진도대교'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진도대교 금속 바람막이관 50여m와 가드레일이 5m가 파손됐으나 차량 통행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바지선은 이날 조력발전소 공사장 접안차 99t급 예인선 '제1 새한호'에 의해 마산에서 해남 방면

으로 끌려오고 있는 중이었다. 목표해경은 예인선의 추진력이 약해 강한 조류에 밀리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며, 진도대교 관리업체인 현대건설을 통해 정밀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울돌목은 폭이 294m로 우리나라에서 바닷물의 흐름이 가장 빠른 곳으로, 조류의 속력이 11노트(knot, 시속 20km)가 넘는다.

/목표=이상휴기자 lsh@kwangju.co.kr

## 위험천만 아파트 공사장 발파작업 인근 주택가 바위파편 '날벼락'

### 남구 주월동 호반 베르디움 2차

대낮 아파트 공사장에서 바위 파편이 인근 주택가로 날아드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지난 26일 오후 1시30분께 광주시 남구 주월동 호반 베르디움 2차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발파작업 중 바위 파편 2개가 인근 호반 베르디움 1차 아파트와 인도로 튀어 날아갔다.

지름 10cm 크기의 성인 주먹만한 바위 파편은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광주 75기36××호 그레이스 봉고차에 떨어져 지붕 일부가 크게 파손됐

다. 나머지 한 개는 인도 쪽으로 날아갔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사고가 나자 아파트 주민 70여 명은 아파트 건설 현장을 찾아가 강력히 항의했다.

경찰 관계자는 "화약을 넣은 구멍을 덮어야 하는데 발파 구멍 한 곳이 제대로 덮이지 않았으며, 방호벽 높이도 낮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사 현장 책임자 등을 불러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 '오지호 화백 생가' 문화재 해제 불가

### 광주시 입장 재확인

광주시가 '오지호 화백 생가'의 문화재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인근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광주시는 27일 "시 기념물 제6호인 오지호(1905~1982) 화백 생가에 대해 인근 지산 2동 주민 200여명이 문화재로 인한 재개발 불가를 따른 재산권 침해 등을 들어 해제를 요구했지만 지정 당시의 문화재적 가치를 상실했다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 해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제12조)은 문화재로서 가치 상실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심의를 거쳐 지정 해제가 가능하나, 오화백 생가는 후손이 거주·관리하는 등 가치 상실 이유가

없다는 것이 광주시의 입장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오지호 화백 생가가 포함된 일대 1만3천여평을 7~15층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재개발하기로 하고 지난해 5월 재개발추진위를 구성한 뒤 문화재 지정 해제를 줄기차게 요구하면서 지자체와 갈등을 빚어왔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정 문화재의 경우 실질적으로 가장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는 소유자가 해제를 요청해도 지정 당시의 문화재적 가치가 그대로 있으면 해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화백은 한국 인상주의 회화의 대가로 지산동 생가는 지난 54년부터 82년 작고할 때까지 창작활동과 후학양성에 힘을 기울여 왔던 곳이며 1986년 9월 기념물로 지정됐다.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 햇볕 가리는 구름 8월 28일 (윤 7월 5일) ◇전국날씨

구름	기온	비
광주	23~30	구름맑음
대전	23~30	구름맑음
대구	22~30	구름맑음
부산	22~30	구름맑음
서울	22~30	구름맑음
충청	22~30	구름맑음
전주	22~30	구름맑음
제주	22~30	구름맑음
안동	23~32	구름맑음
대구	23~32	구름맑음
부산	23~30	구름맑음
대전	23~30	구름맑음
대구	22~31	구름맑음
부산	23~31	구름맑음
대전	23~31	구름맑음
대구	22~31	구름맑음
부산	22~31	구름맑음
대전	22~31	구름맑음
대구	22~31	구름맑음
부산	22~31	구름맑음

▲해돋이 06:01 ▲해질 19:05 ▲달돋이 09:50 ▲달질 21:02  
기상내선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9(화)	30(수)	31(목)	9/1(금)	2(토)	3(일)
날씨	☀	☁	☀	☀	☀	☀
최저/최고	23/30	22/29	22/30	23/30	23/30	22/30

### 로또 구매자 63% "일확천금 기대"

40대 71% "구입경험 있다" 하고 로또를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미삼아' 산다는 응답은 29%에 불과했다.

로또 구매 경험자의 구매 빈도는 '올들어 1~2번'(26.1%)이 가장 많았지만 '가을 매주'(24.6%), '한달에 1~2번'(22.7%)이란 대답도 많아 순환적으로 구매하는 시민이 상당수인 것으로 분석됐다. 평균 구매횟수는 올들어 11.4회, 1회 평균 구입금액은 7천 700원으로 집계됐다.

연령별 로또 경험비율은 40대가 71%로 가장 높았고 30대(68%), 50대(63.5%), 20대(49%)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66.5%)이 여성(48%)보다 높았

고. /연합뉴스

### 생활안내

교통안내	기장법률상담소	학교폭력
광주종합버스터미널 360-8114	보건복지문화정책연구소 671-4050	국민알이 112
월도안내 1544-7788	광주 YMCA 527-0011	전남경찰청 226-0112
대한항공 222-2000	24시간 청소년상담국민알이 1388	광주지검 233-2828
아시아항공 221-6300	국세종합상담센터 1588-0060	광주지법 233-2828
한국도로공사 1588-2505	국세종합상담센터 1588-0060	광주청사 233-2828
	국세종합상담센터 1588-0060	국세종합상담센터 1588-0060
	국세종합상담센터 1588-0060	국세종합상담센터 1588-0060
	국세종합상담센터 1588-0060	국세종합상담센터 1588-0060

### KTX 승차권 문자메시지로 받는다

#### 철도공사 내달부터 시범 운영

현대전화 문자 메시지(SMS)만으로도 KTX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한국철도공사는 철도 이용객이 본인 휴대전화에 저장된 문자 메시지를 철도 승차권으로 이용하는 'SMS 티켓' 서비스를 개발, 내달 1일부터 KTX 패밀리회원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SMS 티켓'은 인터넷으로 예약하고 결제한 철도 승차권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내려 받아 승차권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저장되는 문자 메시지에 예약한 열차 정보와 좌석번호가 표시되며 고유 일련번호가 포함되어 있어 승차권의 진위 확인이나 취소 및 반환 정보로도 활용된다.

'SMS 티켓'을 이용하려면 철도공사 홈페이지(www.korail.com) 또는 철도회원 홈페이지(www.qubi.com)를 통해 '열차표 인터넷 예약서비스'에 로그인한 뒤 이용할 열차의 좌석을 예약,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문의: 1544-7788)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 50% Sale

# 이태리 가구

12년 전통의 대 서점

총 4천여 점의 대 서점 오픈 기념

총 4천여 점의 대 서점 오픈 기념

12년 전통의 대 서점 오픈 기념 가구 50% 할인 행사

총서 4천여 점은 모두 독점이며 1만여 점의 대 서점 오픈 기념, 5천여 점의 대 서점 오픈 기념, 5천여 점의 대 서점 오픈 기념

총서 4천여 점의 대 서점 오픈 기념

총서 4천여 점의 대 서점 오픈 기념

총서 4천여 점의 대 서점 오픈 기념

총서 4천여 점의 대 서점 오픈 기념

총서 4천여 점의 대 서점 오픈 기념

## Well-being

# 가미스시

8월 25일 오픈

가미스시